



|우수작|

참신한 기획, 진부한 연출,  
〈세계를 뒤흔든 순간-러시아혁명〉  
대중친화적인 역사 다큐멘터리를 바란다

한석현

편향된 이데올로기로 인한 역사 인식의 불균형? 좌파 혁명과 혁명가를 다루는 책들이 줄줄이 출간되고, 대학의 정규 커리큘럼 안에서 마르크스의 사상이 선택과목으로 교육되는 지금, 웬 철지난 명제냐고? 하지만 아직도 현실이 그러한걸. 책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수업을 선택하는 건 순전히 개인의 기호 문제일 뿐, 다섯 개의 보기 중 프랑스 혁명의 의의가 아닌 것을 찾아보라는 문제의 정답을 골라내려고 참고서를 새카맣게 줄쳐가며 암기하는 것에 비해 그 이데올로기적 효과는 지극히 미미하지 않은가. 다시 말해, 아직도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은 중요하게 다루지만, 러시아혁명은 다루지 않는 세계사 교과서를 배우고 있는 현실에서, 그 진부한 명제는 여전히 머리 싸매고 고민할 가치가 있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20세기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러시아혁명이었다”라고 선언하며 러시아혁명을 통해 현대사를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념 갈등과 분단 문제를 반추해보자는 <세계를 뒤흔든 순간

- 러시아혁명>(이하 <러시아혁명>)의 기획 의도는 참으로 반갑다.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영향력은 믿기 싫을 만큼 강력한 바, <러시아혁명>이 다소나마 기울어진 역사 인식의 균형추를 들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

방송의 영향력은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서 나온다. 얼마나 많은 시청자가 시청했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영향이 판가름된다. 많은 시청자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그것이 방송의 첫째 미덕이라 한다면, 역사 다큐멘터리로서 <러시아혁명>이 본연의 기획 의도를 잘 살리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지표도 바로 거기에서 찾을 수 있겠다.

### ‘특정 소수’의 시청자?

‘불특정 다수’를 시청자로 하는 방송에서 시청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냐는 프로그램 제작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일 것이다. 그 점에서 <러시아혁명>은 ‘특정 소수’만을 시청자로 제한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몇몇 장면들에서 배경 지식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눈에 띄는데, 가령 이런 부분들이다. 이전까지 스탈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가 3부의 중반쯤에서 트로츠키와 스탈린의 적군 모병 방법을 비교한다. 권력을 잡기 이전의 스탈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 같은 스탈린의 갑작스런 등장은 다소 혼동될 수밖에 없다. 또, 10월 혁명 당시 겨울궁전을 공격하는 장면에선 이런 내레이션이 나온다. “에이젠슈타인의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극적인 장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언급은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내용일 텐데, 영화사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에이젠슈타인을 어찌 알겠는가? 이처럼 <러시아

혁명>에는 특정 지식에 대한 선 이해를 전제로 연출된 장면이 상당 부분 눈에 띈다. 이것은 다시 말해, <러시아혁명>이 러시아혁명에 대한 일정 정도의 관심과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시청자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는 의미이다.

일요일 밤 11시에 편성된 프로그램으로서 태생적 한계, 역사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적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시청 대상 자체를 미리부터 제한하는 방식은 정당하지 않은 듯하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다양한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장벽이 될 수도 있다. 특별한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일정한 교양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연출이 모든 방송 프로그램이 지향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 단조로운 비주얼 형식

시청 대상의 설정이 프로그램의 외적인 조건이라 한다면, 프로그램 자체의 내적인 완성도는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더욱 결정적인 요소이다. 역사 다큐멘터리로서의 내적인 완성도는 먼저 영상 매체의 특성을 얼마만큼 잘 살리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겠다. 같은 역사 테마를 다룰 때, 활자 매체의 장점으로는 구체성과 내용의 깊이를 들 수 있다. 그에 비해 영상 매체는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긴 힘들지만 입체적으로 역사를 바라볼 수 있고, 활자 매체에 비해 접근성이 훨씬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혁명> 역시 시청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각적 장치를 활용한다. <러시아혁명>에서 활용하고 있는 시각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다. 사건 당시의 영상과 사진, 영화 장면, 사건이 일어났던 공간의

현재 모습, 전문가 인터뷰, 사건의 재연, 컴퓨터 그래픽. 이렇게 분류해 놓고 보면 아주 다양한 시각 요소를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시각적인 연출은 매우 단조롭고, 역사 다큐멘터리의 일반적인 구성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러시아혁명 당시의 시각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만하다.

빈번하게 등장하는 재연 장면은 이런 부족한 시각 자료를 대체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특히 당내의 의견 대립을 논쟁으로 재연하는 장면 같은 경우 대립 구도를 전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장면들, 예컨대 수병들의 반란이나 여타 전투 장면, 암살 장면 등에서 리얼리티의 부족으로 기대했던 효과를 얻어내지 못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재연이라는 장치의 활용은 부족한 시각 자료를 대체하고 당시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미숙한 연출로 다른 시각 요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튀어 보여, 프로그램 전체를 영성하게 만들기도 한다. 1부에서 러시아 농민들의 생활상을 말하면서 러시아의 민속춤과 음악을 화면으로 제시하는 장면을 예로 들 수 있다. 내용상 큰 연관성을 발견하기 힘들뿐더러, 이전과 이후의 장면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불필요한 군더더기로 보인다.

절대적인 시각 자료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러시아혁명>에서 비주얼의 빈약함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다. 재연이라는 장치를 활용하긴 했지만, 웅색한 스케일과 조잡한 연출은 힘든 제작 여건을 짐작케 할 뿐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오히려 재연에 치중하느라 컴퓨터 그래픽이나 사진, 일러스트, 음악 등의 활용에는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느낌이다.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밀도 있는 편집을 시도했다면, 재연 방식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색다르고 신선한 느낌의 비주얼 구성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 입체적인 역사 재현의 부재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한편으로 구성 형식의 측면에서 판단해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혁명이라 함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상의 총체적인 변화를 뜻한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여 입체적으로 재현할 때, 혁명의 전체적인 진행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혁명>의 경우는 어떠할까?

<러시아혁명>은 그 점에서 다소 평면적인 구성을 취한다. 예를 들어, 혁명 이후의 상황은 독일과의 전쟁, 외국의 간섭과 점령, 백군과의 내전, 식량 위기, 생산성 저하 등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며 혁명 이후 러시아의 사회 변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러시아혁명>에서는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을 취한다. 따라서 각각의 관련성이나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소홀하며, 혁명 이후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현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러시아혁명>의 구성 형식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정치, 경제, 문화 같은 영역으로 범주화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역사 교과서의 분절적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영상 매체의 특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방식일뿐더러,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합적인 시선으로 파악하는 데도 적합한 방법은 아닌 듯하다.

<러시아혁명>은 역사 교과서의 분절적 형식에 따라, 큰 틀에서 혁명의 주요한 흐름과 맥락을 잘 짚어주고 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혁명 전 당내에서 레닌의 지위는 무엇이였을까? 볼셰비키 당내의 의사 결정구조는 어땠을까? 레닌은 어떻게 반대자를 물리치고 4월 테제를 관철시킬 수 있었을까? 레닌과 트로츠키는 협력 관계였을까? 그리고 스탈린은 조약을 통해 영토를 다른 나라에 넘긴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 총서기란 어떤 직책일까? 스탈린은 어떤 명분으로 트로츠키를 축출했을까? 러시아의 장군들은 어떻게 독자적인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을까? 러시아의 절대 다수는 무산자 계급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백군을 구성하는 병사들은 어떤 이들인가? 러시아의 공장에선 무엇을 생산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한 시청자의 지식을 가정한 연출과 맥을 같이하는 생략과 함축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생략과 함축이 이루어지는 것은 역사 서술에서 특정 사건의 원인과 결과, 역사적 의의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지만 양상한 골격만을 드러내는 구성보다는 골격을 이어주는 세세한 디테일을 충분히 담는 방식이 더욱 흥미로운 역사 서술의 방식일 수도 있다. 정리하면, <러시아혁명>의 구성 형식은 생략, 함축, 분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는바, 유기적 구성, 입체적 재현, 생생한 디테일의 부재가 아쉽다.

### ‘그들만의 다큐멘터리’를 넘어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러시아혁명>은 불균형한 역사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기획 의도의 참신함이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러시아혁명>은 기획 의도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시각적 연출과 유기적 구성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의 완성도는 갖추지 못했다. 구태의연한 시각 연출과 내용 구성의 불친절함은 시청자들이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은 아닐는지. 많은 시청자가 보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당연히 본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힘들 것이다.

역사 다큐멘터리에 대한 시청자의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어렵다, 딱딱하다, 혹은 관심 있는 일부 사람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등. 그런데 혹시 시청자뿐만 아니라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 역시도 이러한 편견을 공유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신한 기획과 주제의 정치적 올바름만이 훌륭한 다큐멘터를 이루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들어 우리 방송에서 주제 의식이나 기획에서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주제적인 측면에서만 다큐멘터리의 완성도를 평가할 수는 없다. 방송 프로그램이 제작진의 자기만족적 행위가 아니라면, 다큐멘터리 장르도 연출이나 형식적인 측면에서 더욱 높은 완성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다큐멘터리에서나 볼 수 있는 구태의연한 연출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시청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형식 실험이, ‘그들만의 다큐멘터리’라는 선입견을 깨는 방법일 것이다. 많은 시청자의 눈과 귀를 잡아당기는 대중친화적인 역사 다큐멘터리의 탄생을 기대한다.